



Received: 2026/02/11
Revised: 2026/02/23
Accepted: 2026/03/09
Published: 2026/03/31

***Corresponding Author:**

Byung Hoon Kang
33021, Unit 101, No. 204, 46, Hwangsansbeol-ro
1098beon-gil, Yangchon-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E-mail: rkd4113@naver.com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마한과 콜벳의 해양전략사상을 전략의 3요소 틀로 분석하고, 이를 다영역 작전이라는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유·무인강습상륙단 전력 확보,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구축, 임무 기반의 탄력적 작전개념 도입이라는 한국 해군의 합동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maritime strategic concepts of Mahan and Corbet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hree elements of strategy and reinterprets them from the modern perspective of multidomain oper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it proposes measures to enhance the jointness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securing Korean-style manned and unmanned assault landing force capabilities, establishing a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 and introducing a mission-based flexible operations concept.

Keywords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마한과 콜벳(Mahan and Corbett),
해군(ROK Navy), 합동성(Jointness),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

다영역 작전시대 한국 해군 합동성 강화 방안: 마한과 콜벳의 해양전략사상을 중심으로

Enhancing the Joint Capab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in the Era of Multidomain Operations

강병훈*

해군 소령/해군대학 지휘참모과정 학생장교

Byung Hoon K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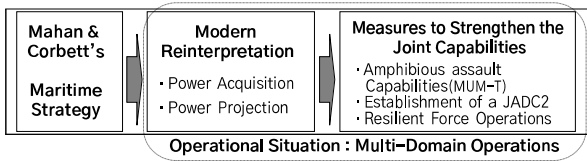
LCDR, ROK Navy/Student officer of Naval Commander & Step Course,
ROK Naval War College

1. 서론

미래 전장은 다영역 전장을 초연결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신개념 전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1], p. 91). 이러한 작전환경에서 합동성은 전투력 상승효과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이다([2], p. 156). 해군은 기술군이다. 기동성, 지속성, 원해 작전 및 전력 투사능력을 바탕으로 합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해군의 합동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함의를 마한과 콜벳의 해양전략사상으로부터 얻었다. 전략의 3요소(목표, 수단, 방법)의 틀로 고찰한 후 다영역 작전 환경을 반영하여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합동성 극대화를 위한 ‘전력 확보’ 측면과 ‘전력 운용’ 측면에서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해군의 현실태를 진단한 후 도출된 함의에 따라 한국해군 합동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연구의 흐름을 도식화 하면 Table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마한과 콜벳의 해양전략사상을 논의한다.

Tabl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research flow



2. 마한과 콜벳의 해양전략사상 고찰

2.1 마한

마한은 해군력을 국가전략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제해권 획득을 통한 절대적 해양통제(sea control)를 국가 번영과 전쟁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개념으로 제시하였다([3], p. 278). 먼저, ‘전략의 목표’는 국가의 번영과 강대국 지위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해양사용의 자유 보장, 즉 절대적 해양통제였다. 이것이 국가의 군사적·경제적 활동을 제약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마한에게 해군력은 단순한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국가전략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기반이었다([4], p. 119).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수단’은 강력한 전투함대로 보았다. 특히, 거함거포 중심의 수상전력을([5], p. 6) 핵심수단으로 인식하였으며([6], p. 262), 이들의 지속적 작전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진기지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7], p. 788). ‘전략의 방법’은 전투함대의 집중적·공세적 운용이었다. 그는 조미니가 지상전에서 강조한 ‘집중의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였다. 함대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집중시켜 결정적 해전을 유도하고 적 함대를 격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8], p. 242). 함대결전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한 후 해상교통로를 통제함으로써 국가전략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해양전략의 핵심이었다.

요약하면, 마한은 절대적 해양통제 달성을 ‘전략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강력한 전투함대 및 전진기지를 ‘전략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함대를 집중하고, 함대결전이라는 ‘전략의 방법’을 통해 적을 격멸하여 제해권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5], p. 7).

2.2 콜벳

콜벳은 클라우제비츠의 영향을 받아 전쟁을 정치

의 연장으로 인식하였다. 마한식의 절대적 해양통제는 역사상 사례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먼저, ‘전략의 목표’는 상대적 해양통제를 통한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있었다. 전쟁을 제한전쟁과 무제한전쟁으로 분류하였으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택적 해양통제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해군작전 역시 국가의 정치적, 전략적 목적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해전의 성공 여부는 제해권 확보 여부가 아니라, 전쟁 목적 달성에 기여했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의 수단’은 해군력 단독이 아니라, 해군과 지상군의 합동 전력이었다. 그는 인간의 활동 기반이 지상에 있음을 강조하며, 해군은 지상군과 결합할 때 국가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8], p. 233). 이러한 관점에서 콜벳은 상륙전력을 해군과 지상군이 통합된 대표적인 합동전력이자 해양전력의 핵심요소로 보았다. ‘전략의 방법’은 선택적, 일시적 해양통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탄력적인 전력 운용이다. 그는 절대적 제해권의 개념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분산을 전제로 한 집중과 기동성·융통성을 중시하는 전력운용을 강조하였다. 단순한 집중은 경직성과 제약을 초래한다고 보았으며, ‘아군의 분산 → 적의 분산 → 아군의 집중’이라는 연쇄관계를 통해 집중의 원칙이 달성 가능함을 주장하였다([5], p. 14).

요약하면, 콜벳은 상대적 해양통제 확보를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전략의 목표’로, 해군-지상군의 합동전력을 ‘전략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기동성과 융통성을 중시하는 ‘전략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 해양통제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2.3 소결론: 현대적 재해석

‘전략의 목표’는 다영역 전구에 대한 합동효과 기여를 통해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기체계와 지휘통제체계의 발달로 해상에서 모든 영역으로의 탐지·추적·공격까지 가능하므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수단’은 전 영역에 대한 합동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적의 결정적 목표([9], p. 311)로 기동 및 타격할 수 있는 전력제대이다. 이러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의 사상적 토대는 마한이 주장하였던 전략사상과 맥

이 같다. ‘전략의 방법’은 전력들의 탄력적인 결합·해체로 ‘분산의 집중화’([5], p. 14)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전력운용 체계이다. 이를 토대로 다영역의 복잡하고 난해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콜벳의 제한전 및 선택적 해양통제 개념과 높은 정합성을 지닌다. 다영역 작전에서는 특정 영역의 지속적인 통제보다는 작전영역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결정적인 합동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10], p. 397).

정리하면, 마한의 사상은 해군전력 확보라는 ‘전략의 수단’ 측면에 함의가 있었고, 콜벳의 사상은 확보된 전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의 방법’ 측면에 의미가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합동성 차원에서 해군의 현실태를 진단한다.

3. 합동성 차원 해군의 현실태 진단

먼저 ‘전략의 수단’으로, 합동능력을 갖춘 제대와 기반체계가 미비하다. 입체적 작전능력과 합동성 강화를 위한 기동함대가 2025년 2월 1일 제주에서 창설되었다. 하지만, 함대전력 중 합동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은 이지스함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작전지속을 위한 수리 등 군수능력도 아직은 정비창(진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휘통제분야에서도 부족하다. 이지스함만이 합참 및 공군의 미사일방어 작전센터¹⁾와 미사일 감시 임무에 한해 표적공유를 통한 공통작전상황도를 가질 뿐이다. 그 외의 합동지휘통제체계는 아직까지 신뢰성 있게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전략의 방법’ 측면이다. 해군은 아직까지 고정된 성격의 작전개념을 운용한다. 해역별 함대가 관할구역에서 예측전력을 지휘하는 구조이다. 작전개념 상 플랫폼의 결합·해체는 아직 생소하며, 많은 노력선이 요구된다. 특히 함대 예측전력이 아닌 플랫폼의 경우 해작사의 통제도 필요하다. 합동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산의 집중화’가 필요한데, 현재의 해군 전력운용 체계로는 달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 미사일방어작전센터(KAMDOC: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Operations Center): 한반도 전구 내 미사일 방어 작전을 총괄하는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진 공군의 작전통제소

4. 다영역 작전시대 한국해군 합동성 강화 방안

다영역 작전의 핵심은 영역 간 융합(convergence) ([11], p. 20)을 통해 작전속도(tempo) ([12])를 주도하여, 적이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딜레마를 창출하는 것이다([13], pp. 63-64). 합동성이 바로 융합의 촉진제인데, 여기서 한국 해군의 부족한 점이 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일부 식별되었다. 진단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해군의 합동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4.1 한국형 유·무인강습상륙단 전력 확보

기동함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유·무인강습상륙단’ 전력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적의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핵심체대로, 감시·정찰(ISR), 지휘통제·통신(C4I), 정밀타격무기(PGM)의 유기적인 복합체계이다([9], p. 307). 유·무인전력모함 및 탑재전력,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고 이지스함을 추가 확보하여 적에게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14], p. 4)’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륙강습작전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에 대한 타격지원이 가능하므로 진정한 합동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15], p. 29). 또한, 마한이 강조한 바 기동함대의 모항인 제주에 군수능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무인강습상륙단의 지속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4.2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 구축

또한,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각 군의 정보 및 탐지자산과 화력을 통합하는 다영역지휘통제 개념의 연장이다([16], p. 99). 해상에서 군함이라는 플랫폼은 ‘탐지 → 식별 → 추적 → 요격’까지 모두 수행이 가능하다([17], p. 329). 특히, 기술발달로 수행과정들에 대한 전장공유를 합동전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하다. 이러한 이점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전력확보와 병행하여 유·무인강습상륙단을 중심으로 합동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 다영역의 합동전력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4.3 임무 기반의 탄력적 작전개념 도입

전력운용은 임무와 상황에 따라 플랫폼들의 결합·해체가 용이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무 기반의 탄력적인 작전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군사·과학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작전 구역에서 구역경비를 실시하는 임무방식은 초창기 해군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18], p. 241). 감시·정찰 및 복합전, 강습상륙작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해군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작전개념을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상륙작전의 경우 해병대사와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관부대와 면밀히 협조하여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4.4 소결론

다영역 작전환경 하 한국해군의 합동성 강화 방안 3가지를 제시하였다. 논의된 바, 한국해군의 합동성 강화는 전력 확보, 합동지휘통제체계 구축, 전력 운용 측면을 중점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마한과 콜벳의 해양전략사상이 현대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마한과 콜벳의 해양전략사상을 전략의 3요소로 고찰한 후 다영역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전력의 확보’와 ‘전력의 운용’ 차원에서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유·무인강습상륙단 전력 확보’,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 구축’, ‘임무 기반의 탄력적 작전개념 도입’이라는 한국 해군의 합동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불확실한 전장환경과 미·중 갈등의 국제정세 속에서 해군은 위협상황과 조건에 맞는 전력을 확보하고, 전력 운용 및 작전개념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해군이 합동작전의 핵심군이 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1] 배송영, 김홍식, 문주호, ‘[국방논단] 다영역 작전(MDO)에서 우위 달성을 위한 지휘통신체계 발전 방향,’ 국방과 기술, 제541호, 2024,

90-103쪽.

[2] Byungki Jung, Kitae Kim, & Sungje Park, ‘Analysis on the Mission Performance of Korean-Type Aircraft Carrier Considering Jointness,’ Journal of the KNST, VOL. 5, NO. 2, 2022, pp. 155-160.

[3] 박창희,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 2013.

[4] Dong-eun Kim, ‘Alfred Thayer Mahan’s Theory on Naval Strategy and Change of the U.S. Naval Strategy in the Early 20th Century,’ Military History, NO. 119, 2021, pp. 115-163.

[5] 이창근, 김동규, ‘마한과 콜벳의 海洋前略 思想 比較 研究,’ 해양과학기술, 제24권, 2000.

[6] Alfred T. Mahan, Lessons of the War with Spain and Other Articles, Little, Brown, and Company, 1899.

[7]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2』, 김주식 역, 책세상, 2006.

[8] Jumi Park, ‘Continental Strategy Theories That Influenced Maritime Strategy Theories,’ STRATEGY21, NO. 43, 2018, pp. 225-247.

[9] Jong Jeong & Jungeup Gye, ‘Aspect a Future War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Weapon-System,’ in proceedings of the 8th Conference on National Defense Technology, Seoul, July 2012, pp. 306-318.

[10] Young-Kil Kim, Sun-Woung Kim, & Joong-Goo Lee, ‘Mosaic Warfare and Military Drone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ic Implications and Policy Challenges for South Korean Military,’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1, NO. 5, 2025, pp. 395-404.

[11] TRADOC, ‘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8,’ TRADOC Pamphlet 525-3-1, 2018.

[12] Adam Taliferro & Nathan Jennings, ‘Tempo, Cohesion, and Risk: Towards a Theory of Multi Domain Warfare,’ WavellRoom, 2021.06.18.

<https://wavellroom.com/2021/06/18/tempo-cohesion-and-risk-towards-a-theory-of-multi-domain-warfare/> (accessed 2026.02.11.)

[13] Kyengho Son,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U.S. Multi-Domain Operations with a Doctrinal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Japanese Military and Culture, NO. 34, 2022, pp. 57-79.

[14] Jeffrey E. Kline, ‘A Tactical Doctrine for Distributed Lethality,’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2016.

[15] Jeong-Hyun Kim, ‘Measures of Joint Forces’ Development in the Maritime Territorial Conflict,’ Review of Korean Military Studies, VOL. 2, NO. 1, 2013, pp. 63-102.

[16] Injai Won & Seongjong Song, ‘The U.S. Future Warfighting Concept and Its Implication for ROK Armed Forces (Focusing on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 VOL. 78, NO. 1, 2022, pp. 81-112.

[17] J. B. Bartholomees Jr., The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National Security Issues. Volume 1: Theory of War and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0.

[18] 국방대학교, 국방환경 변화에 부합한 미래 해군 병력구조 발전방안 연구(외국군 병력구조 및 운영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국방대 산학협력단, 2022.